

전 남

전남 참다래 농가 '햇땀' 상표로 뭉친다

고흥·강진 등 6개 농협 250여 가구 참여

올 매출 1300여t 목표...마케팅 활동 집중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참다래(키위)가 '햇땀'이라는 상표로 공동 출하된다.

17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개별 농가 또는 지역 단위로 분산 출하하는 참다래를 농협 전남지역본부 농산물 광역상표인 '햇땀'으로 공동 출하하는 연합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4월부터 지역별로 참다래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연합사업 설명회'를 열었으며 고흥·강진·장흥·완도 등에서 6개 농협 250여 농가가 사업참여를 신청했다.

또 지역 농협별로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공동 선별과 공동 계산을 원칙으로 하는 '참다래 공선출하회'를 조직했다.

전남지역본부는 '햇땀' 상표를 담은 포장지 디자인 개발에 들어가 이

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 물량은 첫해인 올해 1300여t을 취급하고 매년 1000t의 매출을 확대해 2015년까지 5000t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시장개척을 위해 오는 10월 중순께 첫 출하를 앞두고 1차로 유통업체를 비롯한 도매시장을 대상

으로 집중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연합사업단은 지난 2006년 발족해 '햇땀' 상표로 출하한 광양 애호박·영암 대봉 등으로 17억여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나주를 비롯한 18개 시·군에서도 연합사업을 통해 46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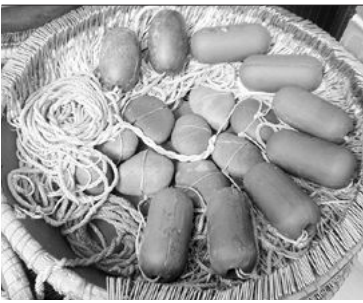
김용복 농협 전남지역본부장은 "전남지역 참다래 생산량은 전국의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유통시설과 마케팅 역량 부족으로 제값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 광역상표 사업을 통해 참다래 연합사업이 농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외국인들 다도체험

무와 후박나무·푸조나무와 함께 동백나무숲(천연기념물 151) 등이 있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크루즈선을 타고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지난 16일 강진군 도암면 백련사에서 다도(茶道)체험을 하고 있다. 통일신라시대 창건된 천년가람 백련사는 비자나무와 후박나무·푸조나무와 함께 동백나무숲(천연기념물 151) 등이 있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강진군 제공>



신안 흑산 몽돌 수난

홍어잡이 어구 사용 마구 채취  
어민들 생계 고려 단속도 못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신안군 흑산도의 명물인 몽돌이 홍어를 잡는 어구에 사용돼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흑산도 연승어민들은 바다별 빨을 가져다니는 흑산 홍어를 잡는 어구에 해변에서 불법 채취한 몽돌을 묶어 조업하고 있다.<사진>

해상국립공원의 흑산도에서 몽돌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단속기관인 해경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흑산도 연승어민들의 생계 등을 고려해 묵인하고 있다. 어민들이 불법한 몽돌을 해변에서 또다시 불법 채취해 보충하면서 몽돌 해변은 아름다움을

잃어가고 있다. 현재 흑산도 연안 해역을 중심으로 조업하는 홍어잡이 연승 어선은 9척. 어민들은 부력 때문에 뜨는 홍어주낙을 가라앉히고자 홍어잡이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몽돌을 줄에 묶어 사용하고 있다.

홍어잡이 어선은 척당 한번 조업에 1500바퀴의 주낙을 싣고 나간다. 바퀴당 어른 주먹 크기(300~400g)의 몽돌 9개가 사용돼 조업에 필요한 몽돌 개수는 1만 3500개 정도로 추산된다.

하지만 어구에 사용된 몽돌의 절반 정도가 풀러거나 어구분실로 해마다 수백 t씩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몽돌 불법 채취를 이대로 내버려두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자체와 단속기관·어민들이 대제구 사용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신안군과 서부사무소·대학·홍어연승협회 어민들은 18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에서 대책 회의와 가질 예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홍어잡이 배의 연간 어구 분실률은 30~40%(700바퀴)이고 몰살에 풀러버린 몽돌을 합쳐면 절반 정도인 7000여개가 바닷물속으로 수장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필기자 wncho@

완도 장보고 동상 야간 조명 비추다

郡 4100만원 들여 설치

완도군은 해상왕 장보고 대사의 해양 개척 정신과 진취적인 기상을 기리고자 설치한 장보고 동상에 야간 경관 조명 시설을 설치했다.

완도군 완도읍 관문에 설치한 장보고 동상은 높이 31.7m로 인물 동상 중 국내 최대 규모다. 군은 4100만원을 들여 건물 외곽 3개소와 동상 하부 8개소 등 모두 32곳에 조명을 설치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장보고 동상에 야간경관 조명 설치로 인근의 장도 청해진 유적지, 장보고 기념관과 함께 완도 관광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담양군 '뉴-농업발전 플랜' 수립한다

오는 10월까지 ... 기존 농업정책 업그레이드

담양군이 기존 농업정책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미래 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새로운 농업정책을 수립한다.

담양군은 '돈버는 농업, 살고 싶은 농촌, 행복한 농민' 등 '3농 실현'을 위해 '뉴-담양 농업발전 플랜'을 오는 10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군은 2014년까지 중장기 '뉴-담양 농업발전 계획'을 위해 전남도청에서 식품산업담당을 맡아 농업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고연 친환경농산과장을 팀장으로 농정과 복지·관광·지역개발 담당부서와 관련 사회단체 대표·주민대표 등 15인 이내의 전담반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전담반은 9월까지 농업 분야와 품목별로 정밀 실태조사와 강·약점 등 분석을 통한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과 관계 전문가와 농업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세부 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첨단 농업을 지향하는 미래 지향적이고 창조적인 '뉴-담양 농업발전 플랜'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h17@

소방본부, 무더위 속 '벌과의 전쟁'

벌집제거 신고 ... 7월 한달 575회 출동

여름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짐에 따라 소방서의 여름철 벌집제거 출동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17일 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벌집관련 출동건수는 총 5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4건에 대비 27% 정도 증가했다.

최근 들어 도내 하루 평균 30여건씩 벌집 제거요청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이에 따른 벌쏘임 환자도 증가 추세로 2008년 137명·2009년 206건(사망

2명)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남지역 벌집제거 출동건수는 ▲2008년 2783건 ▲2009년 4420건으로, 8·9월에 76~78% 이상 집중돼 있다.

담양소방서의 경우 이달 들어 15일 까지 169건 등 올해 벌집 제거 출동건수가 299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 183건에 비해 63%(116건)가 증가한 수치다.

벌로 인한 피해는 벌초와 야외활동·산행이 증가하는 가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벌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유에 대해 비가 내리는 장마철 활동이 억제된 벌들이 화창한 날씨와 기온상승의 영향에 본격적으로 번식 및 세력확장을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남 소방본부 관계자는 "벌 쏘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벌을 자극하는 향수와 요란한 옷색깔 등을 피하고, 벌초작업시 사전에 벌집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며 "벌집을 발견하게 되면 스스로 제거하려 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기동기자 song@

의원 7명 전원 초선인 함평군의회

특별연수 등 의정활동 준비 부산

의원 7명 전원이 초선인 제6대 함평군의회(의장 양규모) 의원들이 연 구하는 의회·지역발전을 위한 의회 등 새로운 의회상 정립에 발 벗고 나섰다.

함평군 의원들은 군의원으로서 역할을 높이기 위해 개인 이후 매일 의원사무실에 출근해 업무보고서 검토와 행정사무감사 기법연구 등 본격적

인 의정활동 준비에 부산한다. 특히 지난달 12~14일에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주관으로 지방의회 의원 특별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함평군 의원들은 "연수에 참여한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했을 때 양규모 의장이 함께 동행해 '빛그린 산업단지' 이주대책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함평군의회는 제167회 정례회에서 실시 예정인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수감 자료 202건 제출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우수사례는 지속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잘못된 사례는 시정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군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양규모 의장은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앞으로 무엇이 군민과 지역을 위한 행정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상무랜드공인중개사
건물(임대용,투자용)
토지(상무지구 상업지역)
건물(임대용,투자용)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인생 열쇠
큰 꿈을 가지고 많은
정성과노력을 다하여
도 원하는 비를 성취 못

아담공인중개사
서광주역부근 자연녹지
서구 벽진동 서광주역 인근 6,561㎡(1,985평), 3.3㎡당 52만원. 자동차편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매매
광산구 수완동 자연녹지 매매
광산구 1중 일반주거지역 매매

금당 공인중개사
김정기 이하
대인동 4층리용 식당 사무실-원룸-주거 대지121건평308㎡(4억천